

# 대기오염·유지비용 ↓... 베트남·韓, 전기 이륜차로 '진화중'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 ‘배달의 나라’ 한국이 전기 오토바이(이륜차)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쟁을 조용히 치르고 있다.

자동차도 전동화 모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서민이나 배달 플랫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륜차 역시 완성차 회사, 스타트업 등이 가세하며 ‘전기’ 이용 모델이 증가하면서다.

특히 전기 오토바이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소음이 적고, 유지비 등 고정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때문에 생계를 위해 배달 등을 해야 하는 이들에겐 전기 이륜차가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베트남, 오토바이 약 6500만대... 이젠 ‘전기’가 대세

6일 관련업계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베트남 도로교통부에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는 약 6500만 대다. 1억명 가량인 베트남 인구를 감안할 때 2명 중 1명 이상이 이륜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베트남 어느 도시의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남녀노소가 모는 대규모 오토바이 행렬은 진풍경을 연출한다.

## 베트남, 오토바이 등록 6500만대 사고위험·합리적 비용 등 ‘고심’ 완성차 기업 등 ‘전기’ 모델 선택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관계자는 “베트남 국민들의 생활에 이륜차가 깊이 뿌리내린 이유는 가격이 소득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이고 혼잡한 도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기동성이 좋고,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륜차가 너무 많다보니 사고 위험성이 높고 도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대기오염 문제도 커지고 있어 베트남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숫자 제한은 쉽지 않다는 판단에 오토바이를 ‘내연기관’에서 ‘전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 규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베트남 전체 이륜차 중 내연기관은 9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26) 회의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달성’이라는 목표를 선언한 베트남의 경우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골칫거리인 셈이다.

베트남에서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은 대기업, 스타트업 등이 두루 참여



베트남의 플랫폼 중 하나인 고젝(Gojek) 기사들이 고객들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한 가운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B2B 시장, 일반 고객들을 위한 B2C 시장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Vingroup)의 빈패스트(Vinfast)는 전기버스, 전기승용차에 이어 다양한 전기 이륜차를 선보이고 있다. 더온(Theon) 모델의 경우 5.5시간 충전으로 최대 100km를 갈 수 있다. 가격은 6000만~7000만동, 한화로는 320만~370만원 정도다.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스타트업 셀렉스(Selex Motors), 닷 바이크(Dat Bike) 등도 베트남에서 B2B, B2C 시장을 넘나들고 있다.

특히 셀렉스의 경우 대표적인 플랫폼인 그랩(Grab), 고젝(Gojek) 등을 비롯해 커머스 선두인 라자다(Lazada)에도 전기 이륜차를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배달의민족(배민)도 호치민에서 일부는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해 라스트마일 배달을 하고 있다.

## ◆한국, 라스트마일 서비스 경쟁속 전기 이륜차 대안 ‘급부상’

한국에선 인성데이터, 로지올, 바이크뱅크, 닷스테이션, 로지웨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인성그룹이 전기 오토바이 전환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로지올은 업계 1위의 배달대행 플랫폼 ‘생각대로’를 운영하고 있다. 닷스테이션은 인성그룹이 e-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바이크뱅크의 자회사다. 이들 두 회사가 그룹내 전기 이륜차 사업 확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로지올 최규범 부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배달 주문 건수가 25~30% 정도 감소했다. 배달 건수가 줄면서 ‘라이더’로도 불리는 기사분들의 수익이 크게 위축됐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그래서 도입을 고민하기 시작한 게 전기 이륜차다. 전기 이륜차는 기존에 비해 유지비용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축소로)수익이 감소해도 순수익은 고정되거나 오히려 나아질 수 있어 라이더를 비롯한 생태계 참여자들과 상생도 가능하다. 결론



인성그룹 계열인 닷스테이션이 대만의 고고로와 협력해 국내에 설치한 충전 시스템.

적으로 ESG와 연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기 오토바이 도입을 위해 닷스테이션은 앞서 대만의 스타트업 고고로와 국내 독점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도입한 전기 이륜차는 로지올이 운영하는 ‘생각대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지올 윤성열 부장은 “로지올과 바이크뱅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세인 라이더가 한 달에 24일 근무할 경우 내연기관 오토바이인 ‘혼다 PCX’는 매달 약 89만원, ‘고고로 2 PLUS’는 64만원의 고정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연간 기준으로 전기 오토바이 교체시 약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인성그룹, 韓 전기이륜차 전환 앞장 내년까지 전국 충전소 100곳 구축 로지올 ‘배달기사 비용 절감 효과’

고고로 전기 오토바이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서울·경기 252대를 비롯해 전국에 701대가 다니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닷스테이션은 충전기(스왑 스테이션)를 갖춘 고고로 스왑 스토어를 서울 독산동을 시작으로 동대문, 세종, 전주, 대구, 부산 등 현재 전국에 10곳의 문을 열었고 올해 안에 20곳, 그리고 내년까지 전국에 100곳의 스토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규범 부사장은 “전기 이륜차는 소음도 없어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전업 배달 라이더의 경우 주행거리가 연간 약 3만~4만km 이상인데 내연기관 대신 전기로 교체하면 1대당 연간 약 4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와도 상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기계회사인 대동그룹 계열 대동모빌리티도 올해 전기 이륜차를 처음 선보이고 배달 등 B2B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SK매직, ‘친환경 리패키지’ 은상 수상

### ‘2023 굿디자인 어워드’

SK매직이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친환경 리패키지(Re:packag

e)’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상)을 수상했다.

6일 SK매직에 따르면 제품 배송 및 설치 후 다시 회수해 재사용이 가

능한 친환경 리패키지는 국내 최초 친환경 플라스틱(PCR-ABS)을 적용한 ‘윌클린 공기청정기’의 제품 패키지로, 가볍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장점을 가진 발포 폴리프로필렌(EPP)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 기보, 사우디 중기청에 기술평가 노하우 전수

기술보증기금이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에 기술평가 노하우를 전수했다. 양국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협력도 모색했다. 기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 중소기업청장 일행이 기술평가모형 등 주요 업무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보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사우디 방문단은 중기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으로, 혁신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보를 방문했다.

기보는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술평가시스템의 개념과 평가지표 ▲인공지능을 접목한 평가방법론 ▲기술평가, 기술거래, 투자 등 주요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이 6일 오후 기보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업무성과 ▲기술평가시스템 해외전수 사례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기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원제도를 공유해 사우디 중기청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 ‘도착보장’ 이용 셀러에 배송비 할인 등 ‘혜택’

### CJ대한통운

신규 이용자, 이달 30일까지 건당 배송비 1000원 할인 등

CJ대한통운이 이달 30일까지 풀필먼트(fulfillment·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비 할인을 포함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6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를 신규 이용하는 판매자가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도착보장 견적을 신청하고, 연말까지 서비스 계약 및 입고를 완료하면 된다. 건당 배송비 1000원을 한 달 동안 할인받거나 3개월간 무료로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착보장은 판매자의 물류 서비스는 물론 소비자들이 안내받은 상품 도착일에 정확히 배송받을 수 있도록 돕는 D2

C(Direct to Consumer) 솔루션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네이버와 도착보장 서비스를 론칭한 뒤 다방면의 서비스 개발을 놓고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전국에 14개 허브터미널과 280여 개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 면에서도 첨단 물류 기술, 국내 최대 배송 네트워크 등을 통해 역대 최고의 익일 배송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고민거리 중 하나로 여겨졌던 물류비 부담을 줄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CJ대한통운의 물류센터, 차량,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의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인프라 투자 없이도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 한수원, 협력사 맞춤형 ESG 역량 강화

### 진단·현장실사 등 종합 지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K-water와 올해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K-water는 1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또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한다. 이후 ESG 교육,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반위는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코트라·코이카) ▲환경·에너지 컨설팅과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김승호 기자